2025 부산국제불교박람회 현장

부산서 펼쳐진 '불교 놀이터'

불도(佛都) 부산에서 열린 '2025부산국제불교박람회'가 8월 7~10일 벡스코 제1전시장 1홀에서 성료했다. 총 249개 업체가 참가해 372개 부스에서 선명상과 사찰음식, 굿즈 등 다채로운 불교문화를 선보인 이번 박람회는 불교를 일상으로 스며들게 한 도량이었다. 〈편집자 주〉

'참나' 찾아 '마음의 바다'로

한마음선원 부산지원 '마음굴림' 운영
800여 명 참여…인스타 방문 25000건
네 가지 주제로 선택하는 맞춤형 체험
소음 사라진 조용한 공간서 '참나' 만나
온라인 연계로 일상에서도 실천 이어가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hasm77@hanmail.net



한마음선원 부산지원이 운영한 체험 부스 '마음굴림'에는 4일간 800여 명이 참여해 성황을 이뤘다. 사진은 진행을 맡은 혜벽 스님과 청년회 법우들.



'마음굴림' 참가자들은 소규모 체험실에서 진행자들의 안내에 따라 '참나'와 마주했다.

한마음선원 부산지원(지원장 혜도 스님)이 운영한 체험 부스 '마음굴림'이 4일간 800여 명이 참여하며 성황을 이뤘다. 인스타그램 조회수는 2만5000건을 기록해 명상과 마음치유에 대한 현대인의 높은 관심을 보여 줬다.

지난해 '바다마음 단주 명상 체험'으로 관람객의 호응을 얻었던 부산지원은 올해 새로운 프로그램 '마음굴림'을 선보였다. 북적이는 행사장 속에서도 부스 주변에는 차분하고 편안한 기운이 감돌았다. 참가자들은 접수대에서 이름과 연락처를 기재한 뒤 소규모 체험실로 안내됐다. 첫날과 이튿날은 부산지원 아리회가, 셋째 날은 청년회 법우들이 진행을 맡아 관람객을 맞이했다.

작은 방 안으로 들어서면 행사장의 소음이 사라지고, 오직 자신의 호흡과 진행자의 목소리만 남았다. 칸막이로 구획된 공간은 외부와 완전히 차단돼, 참가자들이 편안한 자세로 앉아 안내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했다. 진행자인 혜벽 스님은 바닷가를 배경으로 한 그림을 보여 주며 "바다는 근본(참나), 물방울은 '보이는 나'"라고 설명했다. 모든 물방울이 바다에서 나와 다시 바다로 돌아가듯, 마음굴림은 흩어진 마음을 근본으로 되돌려 본래의 지혜를 회복하는 과정임을 강조했다. 그림 아래에는 "마음굴림이란 모든 것을 근본으로 되돌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본래의 지혜로운 마음이 다시 살아나 삶이 자연스럽게 바뀌게 됩니다"라는 안내 문구가 붙어 있었다.

체험은 △근본에 연결하기 △몸의 주인되기 △감정 되돌려놓기 △이익을 주는 관계 맺기 등 네 가지 주제 중 하나를 선택하는 것으로 시작됐다. 주제를 고른 참가자들에게는 '주인공' 개념이 소개됐다. 주인공은 내면의 근본이자 불성을 뜻하며, 마음속으로 주인공을 부르면 나 중심에서 전체 중심으로 전환되어 모든 존재와 연결된다고 설명했다. "그 순간 더 이상 혼자가 아니고 외로움도 사라집니다"라는 말에 참가자들은 깊이 공감했다.

첫 단계 '마음 굴리기'에서는 눈을 감고 호흡을 가다듬으며 참나와 마주했다. 혜벽 스님의 차분한 목소리가 참가자들의 마음을 고요히 이끌었다. 이어진 '마음 펼치기' 단계에서는 두 가지 활동이 진행됐다. 첫 번째는 인스타그램과 네이버에 마련된 '마음굴림' 전용 페이지에서 마음에 닿은 문구를 골라 댓글로 남기는 것이었다. 두 번째는 '주인공에게 편지 쓰기'로, 마음을 굴린 뒤 내면의 근본에게 전하고 싶은 말을 적어 보는 시간이었다.

부스 밖 벽면에는 참가자들이 쓴 편지와 소감이 빼곡히 걸렸다. "불안함", "항상 웃고 싶은 마음", "아들의 평안한 자립을 지켜보고 싶은 마음" 등 진솔한 고백들이 이어졌고, 그 아래에는 "나를 믿으면 불안함은 없어질 거야", "집착을 내려놓으면 자유로워진다"와 같은 짧지만 깊은 깨달음이 적혀 있었다. 지나던 관람객들은 발걸음을 멈추고 글귀를 읽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현장에는 온종일 사람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1~5명 단위의 참가 신청이 끊이지 않았고, 때로는 체험 시간을 5분으로 줄여야 할 만큼 열기가 뜨거웠다. 안내를 맡은 한 진행자는 "목에서 쇠 냄새가 날 정도로 하루 종일 안내를 했지만, 참가자들이 웃으며 돌아갈 때 보람이 크다"고 말했다.

참여자들의 소감도 다양했다. '근본에 연결하기'를 선택한 20대 취업준비생은 "번아웃이 올 때 근본으로 돌아가는 시간은 방전된 배터리가 충전되는 느낌이었다"고 말했다. '감정 되돌려놓기'를 고른 또 다른 참가자는 "집착을 내려놓는 것이 힘들었는데, 인스타그램에서 본 문구가 평소 생각과 같아 큰 힘이 됐다"고 전했다.

혜벽 스님은 "'주인공'을 부르는 것은 언제 어디서든 실천할 수 있는 가장 간단하면서도 깊이 있는 수행 방법"이라며 "막막하거나 마음이 흔들릴 때 잠시 멈춰 주인공을 불러 보면 나 중심에서 전체 중심으로 전환돼 자유로워진다"고 강조했다.

'초심이' 독자와 만나다

현대불교, SNS·유튜브 등 홍보
인스타 캐릭터 '초심이'에 환호
진우 스님 "대중과 소통" 격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사진 가운데)이 8월 7일 현대불교신문 부스를 찾아 격려했다. 본지 발행인 혜도 스님(사진 오른쪽)과 한명우 대표이사(사진 왼쪽)가 부스를 안내하는 모습.

현대불교신문(대표이사 한명우)은 '2025부산국제불교박람회'에서 독자들과 직접 소통했다. 새롭게 개설한 현대불교 인스타그램과 유튜브 사찰정보 전문 채널 '사찰복덕방'을 알리며 관람객들의 발길을 사로잡았다.

현대불교신문 부스는 인스타그램 캐릭터 '초심이'를 전면에 내세운 홍보존과 인스타그램 팔로우 이벤트, '사찰복덕방' 채널 홍보코너로 구성됐다. 특히 '초심이'는 귀엽고 친근한 이미지로 관람객들에게 불교문화를 쉽고 즐겁게 전달하는 역할을 해냈다. 관람객들에게는 다양한 이벤트를 통해 초심이 키링과 스티커, 메모장, 협찬품인 스틱 침향 등을 선물로 전달했다. 아울러 신문을 배포하며 구독 후원 신청서를 함께 제공해 독자와의 접점을 확대했다,

'사찰복덕방'은 전국 사찰의 역사와 불사 소식, 행사 정보를 영상으로 제공하는 유튜브 전문 채널이다. 부스에서는 채널 주요 영상과 콘텐츠가 상영돼 관람객들이 직접 시청하며 '구독'과 '좋아요'를 눌렀다. 한 관람객은 "영상으로 보니 사찰이 훨씬 친근하게 다가왔다"며 "구독해 두면 언제든 찾아볼 수 있어서 좋다"고 말했다.

현장 이벤트도 뜨거웠다. 인스타그램 팔로우를 통해 즉석 사은품을 받을 수 있는 코너에는 4일간 대기줄이 끊이지 않았다.

박람회 기간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과 범어사 방장 정여 스님을 비롯한 스님들과 내빈들이 현대불교신문 부스를 찾아 관심과 격려를 전했다. 7일 개막식에 참석한 진우 스님은 부스를 직접 방문해 "현대불교신문이 대중과 가까이 소통하며 불교를 알리는 활동을 지속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명우 대표는 "이번 박람회에서 초심이와 인스타그램, 사찰복덕방 채널을 통해 독자와 직접 만나고 소통하는 기회를 만들었다"며 "앞으로도 오프라인과 온라인을 연계한 다양한 콘텐츠로 불교문화의 대중화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현대불교신문은 박람회에서 인스타그램과 유튜브 채널을 홍보하며 독자들과의 직접 소통에 나섰다.

'선명상 체험존' 마음을 비우다



미타선원 행복선명상이 운영한 '10분 명상' 부스.

'선명상 체험존'에서 MZ세대에 맞춘 재미있고 다양한 방식의 선명상 프로그램이 선보여 참가자들에게 깊은 울림과 힐링을 전했다.

미타선원(선원장 하림 스님) 행복선명상이 운영한 '10분 명상' 부스에서는 참가자들이 스트레스 진단지를 작성한 뒤 1:1 상담을 거쳐 호흡 관찰, 소리 명상(싱잉볼), 수식관 등 다양한 명상을 체험했다.

홍법사(주지 심산 스님)의 '싱잉볼 치유의 소리' 부스도 주목받았다. 싱잉볼 안에 올라서 싱잉볼의 깊고 맑은 진동을 느낀 참가자들은 "소리만으로도 몸이 편안해진다"고 입을 모았다.

유연선원(주지 희상 스님)은 '움직이는 사찰'과 협업해 명상과 미술체험, 사경·사불, 굿즈 제작 등을 선보이며 불교를 친근하게 소개했다. 정토불교대학의 친환경 제품 만들기, 마하위하라 사찰의 차명상, 1분 불교 명상, 피럿 눌 의식 등도 선보였다.

이숙희(56) 씨는 "명상으로 머리를 쉬고 비우는 방법을 알게 됐다"고 말했고, 김미진(44) 씨는 "호흡과 소리, 울림 덕분에 마음을 비우고 다시 채우는 경험을 했다"고 소감을 전했다.

사찰음식, 맛으로 수행을 전하다



범어사 주지 정오 스님이 참가자들과 함께 과일 찹쌀떡을 만들고 있다.

'사찰음식전'은 '맛'으로 불교를 배우고 '체험'으로 수행을 느끼게 하는 문화의 장으로 펼쳐졌다.

범어사, 황련사, 혜원정사, 홍법사 등 부산·경남 지역의 사찰음식 대표 사찰들이 참여해 시그니처 메뉴를 선보였다. 제철 식재료를 이용해 수행자의 마음으로 만든 사찰음식이 선보였고, 발우공양 시연도 이어졌다.

범어사 사찰음식 부스에서는 주지 정오 스님이 직접 과일 찹쌀떡 만들기를 진행해 하루 100명 이상이 체험해 참가했다. 정오 스님은 "음식을 만드는 손길 하나하나가 수행"이라며 "만드는 순간과 먹는 순간까지 깨어 있어야 한다"는 가르침을 전했다.

황련사는 된장을 베이스로 약용식물 황련 추출물을 넣은 '황련카레'를 준비해 항산화·항암 효과와 깊은 맛을 동시에 만족시켰다.

이 밖에도 나물, 연근, 두부 요리 등 다양한 사찰음식을 맛보고 발우공양 시연에도 참여할 수 있었다. 김미영(48) 씨는 "직접 만들고 맛보니 담백함과 깊은 맛이 오래 남는다"고 소감을 밝혔고, 이수현(35) 씨는 "재료를 손질하는 과정에서 마음이 차분해졌다"고 말했다.

지구 살리는 업사이클링 '수리보살'



부산불교환경연대는 업사이클링 실천 캠페인 '수리보살'을 진행했다.

부산불교환경연대(상임대표 안도 스님)는 업사이클링 실천 캠페인 '수리보살'로 시민과 불자들의 발길을 모았다. '수리보살'은 고장난 것을 고치는 '수리'와 폐자원을 새롭게 살려 내는 업사이클링을 실천하는 '보살'을 합친 말로, 현수막을 가방으로, 신문지를 봉투로 되살리는 활동을 통해 생활 속 친환경 실천을 알렸다.

또 황령산 케이블카 설치, 가덕도 신공항 건설 등 지역 환경 현안을 시민들에게 알리고 행동을 촉구하는 장이 되기도 했다. '우리가 살리면, 우리를 살린다'는 슬로건 아래 환경 사진과 자료를 전시하고, '환경 룰렛' 이벤트를 통해 현수막 재활용 에코백, 채식용품 등 친환경 경품을 나눴다. 관람객들은 낙동강 하구 철새 서식지 보호 서명운동에도 동참했다.

참가자들은 "신문 봉투가 이렇게 튼튼할 줄 몰랐다"며 놀랐고, 어르신들은 "생활 속에서 바로 사용할 수 있겠다"며 만족감을 보였다. 부산불교환경연대 공동대표 목종·정찬 스님과 원경 스님, 장유정 사단법인 미소원 이사장, 김도연 사무국장 등 환경연대 관계자들이 함께하며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했다.